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후 문학예술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이끄신 현명한 령도

박 영 철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전후시기에 와서 혁명과 건설의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학예술분야에서도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일찌기 문학예술사업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주체를 세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문학예술부문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에서 사대주의의 여독을 철저히 뿌리빼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문학예술이 우리의 혁명위업에 더욱 훌륭히 복무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전집》 제26권 392~393페이지)

전후 문학예술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작가, 예술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문예로선,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속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신것이다.

전후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문예로선,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적 경향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었으며 문학예술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4(1955)년 12월 조선로동당 제1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

여》에서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문학예술부문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극복청산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연설에서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주체를 세울데 대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외곡하고 문학예술분야에 끼친 해독행위에 대하여 폭로하시였다. 그리고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우리 문학예술의 우수한 인민적유산과 고귀한 혁명전통을 부인하면서 그것을 널리 선전할데 대한 당의 정책을 고의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실을 심각하게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5(1956)년 1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를 여시고 우리 당의 문예로선을 반대하고 부르쥬아사상, 사대굴종사상을 퍼뜨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폭로 규탄하신 다음 문학예술분야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고 우리 당의 문예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혁명적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결정 《문학예술분야에서 반동적부르쥬아사상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결정에서는 우리 문학예술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반동작가들이 끼쳐놓은 부르쥬아사상독소를 전군중적인 사상투쟁을 통하여 철저히 청산하며 특히 사상전선에서 주되는 투쟁대상인 반동적부르쥬아사상과 미국식반동문화의 침습을 반대하는 투쟁에 화력을 집중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결정에서는 또한 전체 작가, 예술인들을

우리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당의 문예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키는 방향에서 문화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체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회의들을 부문별로 가지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문학예술분야에 끼친 해독적인 영향을 철저히 폭로규탄하였다. 그리고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적경향을 극복하고 주체를 확립하며 문학예술인대렬의 순결성과 사상의지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것을 결의하였다.

이리하여 문학예술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전체 작가, 예술인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서 더욱 치렬하게 벌어지게 되었다.

당의 문예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를 계기로 더욱 심화발전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5(1956)년 4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보고에서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작가, 예술인들속에 남아있는 자유주의적산만성과 반동적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작가, 예술인들이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보고에서 문학예술분야에서 부르쥬아사상과의 투쟁을 강화하고 당성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며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연구와 생활체험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주체45(1956)

년 10월에 제2차 조선작가대회를 소집하였다.

대회에서는 복잡한 혁명정세에 대처하여 문학예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고수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의 전투성과 혁명성을 확고히 보장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되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에 따라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당정책에 대한 연구와 현실에 깊이 들어가기 위한 대책이 토의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5(1956)년 12월 하순 문학예술부문 지도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문학예술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조주의와 사대주의, 형식주의, 도식주의적경향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이 부문 지도일군들과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의 독창성을 깊이 연구체득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작가들이 우리 당의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남을 쳐다보거나 숭배하는 사대주의, 남의것을 그대로 삼키려는 교조주의적경향을 배격하고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쓸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7(1958)년 10월 작가, 예술인들을 접견하시고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부르쥬아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빼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47(1958)년 12월 전국 작가, 예술인협의회를 소집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작가, 예술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

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 문예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문학예술분야에 고질적으로 남아있던 사대주의적, 교조주의적경향을 극복하고 주체가 튼튼히 선 문학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시킬수 있었다.

전후 문학예술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민족문학예술유산을 옹게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이끌어주신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문학예술유산을 적극 발굴정리하고 오늘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의 문학예술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예술분야에서 민족문화유산들을 적극 발굴정리하고 체계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3(1954)년 8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하신 결론《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과 교시들에서 민족문화유산을 옹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이 인민들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민족문화를 개화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실현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4(1955)년 9월 문화선전성의 책임일군을 부르시고 민족예술의 풍부한 유산들을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문학예술의 훌륭한 전통을 살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민족문학예술에는 아름다운것뿐 아니라 전투적인것도 많기때문에 그것을 남김없이 발굴정리하고 체계화하여야 하며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아서 우리

의 예술을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은 문학, 음악, 무용, 미술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인민이 이루어놓은 민족문화유산들을 체계적으로 발굴수집하고 연구하며 이 부분의 후비육성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작가동맹, 미술가동맹, 작곡가동맹에 고전문학분과, 조선화분과, 민족음악분과를 각각 따로 내오도록 하였으며 예술부문 대학들에도 해당하는 학부와 학과를 내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전문기관들이 꾸려졌으며 민족문화예술의 발전과정과 유산에 대한 지식과 옳바른 리해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대중선전사업도 활발히 전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극복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3(1954)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일부 일군들과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민족음악의 기본음조를 썩소리로 보는 그릇된 견해를 비판하시고 그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5(1956)년 1월 7일 창극 《춘향전》을 보아주시고 원작에서는 시대의 력사적제한성때문에 리도령이 어사로 나올 때 왕의 《선정》의 대변자로 형상되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봉건왕의 정치는 어디까지나 착취계급의 정치라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지난날의 민족문화유산이나 력사적사실이라고 하여 그것을 현대의 립장에서 아무 정치적고려

도 없이 그대로 옮겨놓는다면 복고주의적 편향을 범하게 된다는 것과 그것이 근로자들의 사상교양에 해독스러운 작용을 할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음악, 미술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복고주의적경향이 철저히 극복되게 되었으며 민족문화유산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문학예술의 민족적특성을 뚜렷이 살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전후 문학예술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주체적인 문예작품을 많이 창작하도록 이끌어주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전통주체의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들은 인민들을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도록 교양하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조직동원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5(1956)년 3월에 하신 교시를 비롯한 여러 교시들에서 혁명전통주체작품이 가지는 의의를 거듭 강조하시고 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전통주체작품창작을 잘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7(1958)년 11월 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를 보시고 우리 인민의 민족지상의 과업은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조국을 통일하는 위업은 간고한 시련을 겪어서야 이룩될수 있다고, 이런 작품을 많이 써서 인민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8(1959)년 5월 연극 《불사조》를 보시고 혁명투사의 성격창조에서는 그들이 지니고있는 불굴의 혁명정신과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잘 보여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보통사람들은 작은 곤난도 극복하기 어려워하는데 주인공이 것처럼 간고한 시련의 고비를 겪으면 서도 굴하지 않고 혁명을 위해 싸우는것은 대단한것이며 이런 정신보다 고귀한것은 없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 혁명하는 우리의 앞길에 시련이 없으리라고 말할수 없는만치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과 같은 불굴의 혁명정신을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의 자랑찬 투쟁모습을 형상한 작품과 계급교양에 이바지하는 작품들도 많이 창작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실성과 약동하는 현실을 사상미학적으로 훌륭하게 형상한 우수한 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희곡 《위대한 힘》, 《새길》, 유화 《조국을 위하여》 등이 이 시기에 창작된 대표적인 성과작들이었다.

이와 함께 장편소설 《두만강》, 풍자시 《벌거벗은 아메리카》, 희곡 《다시는 그렇게 살수 없다》, 유화 《수업료》와 같은 계급교양주체의 좋은 작품들도 나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주체의 작품 특히 천리마시대정신을 반영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었던 혁명과 건설의 일대 양양이 일어나고있었다. 전국각지에서

복구건설이 힘있게 진행되고 도시와 농촌에서는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개인경리가 집단적인 협동경리로 개조되는 사회적변혁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공업에서는 세 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천리마속도가 창조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5(1956)년 12월 문학예술부문 지도일군들과 하신 담화를 비롯한 여러 담화와 로작들에서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식의 사실주의창작방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있는 사회경제적변혁과정과 인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작가, 예술인들은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 중편소설 《첫 수확》, 무용조곡 《천리마》, 선전화 《동무는 천리

마를 탔는가?》를 비롯하여 천리마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우수한 작품들을 수 많이 창작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발전의 새시대를 펼쳐놓았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학예술분야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철저히 극복되고 주체가 확립됨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강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문학예술분야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사회주의문명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